목차

Section. 01
왜 문화예술교육인가 8

Section. 02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혁 14

Section. 03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국제적 리더십 18

세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20
세계 속의 한국 문화예술교육 22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 성과 23
「서울 어젠다 : 문화예술교육 발전목표」 25

Section. 04
2011 문화예술교육 정책 비전 26

왜 문화예술 교육인가

有感存
야
和
더
더
더
共共共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강사로 활동하고 받게 될 68시간의 강의료,
그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강사 활동을 하며 삶에 변화가 왔죠.
강의했던 아이 중에 다운증후군이면서
자폐아인 친구가 있었어요.
15번째 수업을 진행하던 날 조심스럽게 오더니
자기도 공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떤 역을 줄까?” 물었더니 작은 소리로
“꽃이요.” 하더라고요.
이런 보람을 예술강사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요?

정현주 연극분야 예술강사

한 국가가 한 사람의 로댕을 낳는 것보다도,
모든 국민이 저마다 자기 창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어당「생활의 발견」

예술은 한 질문에 대해 하나 이상의 답이 있고,
한 문제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음
을 가르친다.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것을 통해
아이들은 각자가 다 정답일 수 있는
다양한 의도와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엘리엇 아이스너 스탠포드대 명예교수

그림 칠을 할 때 그 색이 선 밖으로 나가도
야단치지 않았던 어머니께 감사를 드린다.

하워드 라인골드 테크놀로지 전문가

뮤지컬을 배우며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도
늘 내 춤이 맞고 다른 친구들이 틀린 동작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신○○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문화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소외지역에 예술강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전남 여수의 여수북초등학교는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를 맞았지만,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되면서
학교는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46회 주례연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엘 시스테마가 내게 악기를 주었을 때다.
오, 맙소사! 지금 나는 세상을 가졌다.
내 삶에 무엇인가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구스타보 두다멜 LA필 최연소 상임지휘자

대학은 가르친다.
라신을 알게 하는 것은 대학의 몫이다.
문화부의 역할은 라신의 작품을
사랑하도록 하는데 있다.

앙드레 말로 佛 초대 문화부 장관

75%의 베네수엘라 의대생이
엘 시스테마 출신이다.

남편과 나는 예술교육이 미래 조국의 리더가 될
혁신적인 사상가를 키우는데 필수적이리라 본다.
위대한 예술작품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미셸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영부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혁

문화예술교육이란.

일반인들이 스스로 문화예술적 기량을
표현하는 능력을 북돋으며 향유력을 강화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감수성을 체득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정책 연혁

2004년	11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8월	문화부 – 법무부 업무협약
	11월	문화부 – 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
	12월	문화부 – 국방부 업무협약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2006년	3월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한국 유치
2007년	6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전략 발표
	12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혜자 백만명 달성
		예술강사 5천명, 학교 및 복지시설 1만개 참여
2008년	7월	예술꽃씨앗학교 10개교 출범
	10월	문화부 – 교과부 업무협약
		저명예술인 재능기부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12월	엘 시스테마 창시자 아브레우 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2009년	3월	문화부 – 복지부 업무협약
	12월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백만명 달성 (154만 명)
2010년	3월	예술강사 지원학교 5천 개 달성 (5,436개교)
	5월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공 개최
	8월	문화부 – 여가부 업무협약
	10월	'서울 어젠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통과
2011년	3월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완료
	5월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
		'문화예술 명예교사' 100인의 저명예술인 참여
	11월	'서울 어젠다' 유네스코 총회 안건 상정

정책 통계

학교 ·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교	110.9	140.8	194.3	250.3	315.3	345.3	370.5
사회	63.5	62.25	74	66.56	74.45	114.45	129.45
합산	174.4	203.05	268.3	316.86	389.75	459.75	499.95

예술강사수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교	1,628	1,431	1,764	2,243	3,483	4,156	4,164
사회	233	253	293	321	550	850	940
합계	1,861	1,684	2,057	2,564	4,033	5,006	5,104

수혜자수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교	633,158	483,197	524,848	586,775	1,546,900	1,739,520	1,760,460
사회	28,762	19,959	21,667	22,838	20,804	25,329	32,000
합계	661,920	503,156	546,515	609,613	1,567,704	1,764,849	1,792,460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국제적 리더십

세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예술교육 활성화 청사진 제시

예술과 인문학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PCAH, 명예위원장 미셸 오바마)
2011년 5월「예술교육에 대한 재투자 Reinventing in Arts Education」보고서 발표

※
정규 교과과정인 K-12내 통합적 예술교육 확대, 오바마의 대선공약인
예술봉사단(Artsists Corps)를 적용한 예술강사의 전국적 파견사업을 제안

프랑스

2000년 문화부 - 교육부 업무협약,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발표

프랑스 내의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6000여개의 문화시설을 활용 문화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의 교육활동을 의무화, 전문인력 양성, 리소스센터 구축

2007년 문화예술교육 (L'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정책에 문화부 예산 4천만 유로(약 630억원) 편성

영국

1999년「우리 미래의 모든 것. 창의, 문화 그리고 교육」정책비전 발표

2002년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출범 (예술위 기금 지원)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교육에 접목하기 위하여 학교에 화가, 공연가, 건축가, 미디어 개발자, 과학자 등을 파견하여 창의적 교육프로젝트를 진행

8,520개 프로젝트 실행, 94만 명의 청소년, 6,483개 예술단체, 9만 명의 교사와 5만4천명의 학부모 참여.(성적 향상에 따른 미래소득 증가, 결석률 감소, 교사 이직률 감소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15배로 추산)

음악선언(Music Manifesto)에 기초하여 2008-2011년간 음악교육에 6천억 원 편성

일본

2002년 문화청,「신세기 아트 플랜」

학교와 지자체의 연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실기가 특징으로 지역 내에서 활약하는 예술가, 전통예능전문가 등을 학교에 초빙, 무대예술 및 전문 능력을 감상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함

세계 속의
한국 문화예술교육.

서울 어젠다, 그 이후

01.	유네스코	2010.10 'Korea Evening' 개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서울 어젠다' 만장일치 채택
02.	미국	전미예술정책 라운드테이블 (NAPR)
		2010.10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 The Seoul Agenda'
03.	캐나다	퀸즈대학 '서울 어젠다 실천하기' 국제 심포지엄
		2010.12「Acting on Seoul Agenda」
04.	독일	유네스코 '서울에서 본까지' 국제 심포지엄
		2011.5 유럽 음악의회 공동개최「From Seoul to Bonn」
		메르카토르 재단 주최 '교육을 위한 예술' 컨퍼런스
		'로드맵 검토 – 리스본에서 서울까지' 개최

정책사례 자료 요청

05.	프랑스	지역문화사업국(DRAC)
06.	영국	창의문화교육진흥원(CCE), 런던 대학 엔진룸
		세이지 게이츠헤드 골드스미스 대학
07.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
08.	오스트리아	에듀컬트(EDUCULT)
09.	베트남	순수예술협회
10.	홍콩	입법부
11.	중국	상하이 공무원단
12.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13.	일본	문부과학성 교원연수센터
14.	미국	뉴욕 필하모닉, IAEA(일리노이 예술교육센터),영 아메리칸
15.	콜롬비아	이베로 아메리카노 국제공연예술축제

언론매체보도

17.	미국	Psychology Today, Dewey21(온라인 웹진)
18.	캐나다	Encounters on Education(퀸즈대학 발행 학술지)
19.	벨기에	Culture Action Europe(온라인 웹진)
20.	호주	IFACCA(세계예술위원회연합 발행 온라인 웹진)
21.	독일	Arts Education(연방시민교육국 발행 온라인 웹진)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성과.

대회 개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기간 / 장소.	2010.5. 25 – 28(총4일간) / 서울
공동주최.	대한민국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공동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참가국 및 참여자.	107개국 2,963명(해외 전문가 497명)
	아프리카 55명, 중동 24명, 아태 180명, 유럽 · 북미 190명, 라틴 · 카리브해 48명
주요 참석자.	대통령 영부인, 유네스코 사무총장, 총회의장 등

※
1차 대회(2006년) : 포르투갈 리스본 / 3차 대회(2014년) : 콜롬비아 예정

대회 성과 : 서울 어젠다

「서울 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 선언으로 세계 문화예술교육정책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공고화

의의.	세계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민국의 기여와 역할이 명기 향후 각국 예술교육 정책수립의 기본 준거틀로 제시
내용.	세 가지 발전 목표로 접근성 확대, 양질의 수준 제고와 함께, 예술교육의 사회적 기여를 권고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범위를 확장
확산.	이행 권고안은 27개국의 공동발의로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선포할 것 등을 제안함

유네스코 **서울 어젠다** 채택 경과

2010년 8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의제제안
(외교부 전문 송부)

—

2010년 10월
유네스코 185차 집행이사회
'서울 어젠다 이행권고안' 만장일치 채택

—

2011년 10월
유네스코 36차 총회에서 결의안 최종심의 예정

서울 어젠다 이후의 확산 사례

2010년 9월
미국, 2010 전미 예술정책 라운드테이블
예술교육 의제화, 서울 어젠다 평가

—

2010년 12월
캐나다, 「서울 어젠다 실천하기(Acting on Seoul Agenda)」 국제 심포지엄 개최

—

2011년 5월
독일, 「서울에서 본까지(From Seoul to Bonn)」
유럽 음악교육 심포지엄 개최

2010 서울 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 목표

목표 1
심도 있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 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전략

1.A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성적 · 미적 · 사회적 · 인지적 · 창의적 능력을 조화롭게 계발할 수 있는 근간으로서 예술교육을 주창한다.
1.B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과 세대간 교육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1.C 예술교육을 통해 정규 · 비정규 교육시스템과 구조의 재구축을 촉진한다.
1.D 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예술교육정책을 활성화하며 예술교육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한다.

목표 2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수준을
유지한다.

전략

2.A 학교 안팎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술가와 교육자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2.B 교육자와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2.C 다양한 분야의 사회 구성원 간에 예술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2.D 예술교육의 이론, 연구, 실천 간 지속적 논의 및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목표 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 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전략

3.A 사회 전반의 창의적 · 혁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교육을 적용한다.
3.B 사회 · 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술교육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킨다.
3.C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 문화다양성 및 문화 상호간 대화를 촉진함에 있어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제고한다.
3.D 세계평화에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의 역량을 촉진한다.

2011 문화예술교육 정책 비전

목표 1 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제에 포괄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목표 2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을 학생과 소외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목표 3 정부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목표 4 학교와 지역사회, 예술가의 창의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목표 5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사례를 지역과 국제사회로 확산한다.

2011. 5
문화체육관광부

목표 1

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제에 포괄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추진배경

'서울 어젠다'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에게 정서적 치유와 동기부여, 자기절제력과 타인에 대한 관용과 상호이해를 함양한다. 문회예술교육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할 것이다.

2011년도 추진계획

창의교육 : 미래세대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국 초중고 5,772개교 예술강사 파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등 8개 장르
- **방학예술캠프 (전국 10개 지역 거점) 지역별로 특화된 집중 예술체험캠프**

공동체교육 : 청소년 문화예술 공동체교육

-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사회형 오케스트라 8개 인큐베이팅,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 '몸의 학교'** 연극, 무용, 밴드, 국악 공연화 교육(40개 청소년시설)
- **군장병 문화예술교육** 전국 96개 부대 장병 문화예술교육, 명예교사 멘토링

문화돌봄 :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 **복지기관 예술강사 파견** 아동복지관 144개, 노인복지관 153개, 장애인복지관 58개
- **전국 30개 교정시설과 9개 소년원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통합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전국 290개 사업

- **미혼모쉼터, 노숙인, 임대아파트 주민 등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교류와 이해를 위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참고사례

'엘 시스테마'는 1975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차고 연습장에서 출발하여 국가적 오케스트라 교육시스템으로 발전한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약과 폭력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빈곤 청소년 35만 명을 대상으로 음악을 통한 자존감 고취와 자기절제력 함양, 공동체의식 제고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보여 왔다.

목표 2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을 학생과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추진배경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지원체계를 수립하면서 학생과 취약계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성공사례는 이미 국제사회에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소수자 정책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될 전환점에 있다.

특히 '서울 어젠다'는 그간 창의성 담론에 집중되었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제를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함양, 사회적 창의성으로의 확장으로 그 가치를 다원화한 데 의의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2항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2011년도 추진계획

온 국민 평생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지역공동체 자원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과 시범모델 개발에 집중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 10개 모델 개발**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 지속가능성과 유무형의 수익 창출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 유형화 확산
- **문화의 집 '창의학교' 전국 30개소 지원 생활권 문화의 집에 참여형 인문학 교육**

참고사례

스웨덴 국민의 3명 중 1명은 평생학습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 영국 국민의 15%인 940만 명이 아마추어 예술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술인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9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상 속의 예술 참여는 예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여 예술계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한편,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한다고 분석된다.(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 평균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9.2%)

목표 3

정부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추진배경

2011년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지 6년차를 맞는 해이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중앙정부의 적극적 발의로 제도화와 예산 확대가 단기간에 추진된 특징을 가진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정책 2.0'은 정책의 성숙을 목표로 정책 파트너십 다변화, 민관 협력을 통한 재원과 운영 방식의 다양화,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통한 자생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2011년도 추진계획

중앙단위 파트너십 구축

- 부처간 정책협력 교과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등
- 민관 정책협력 확대
  - **기업 내부 :** '예술을 통한 창의교육' 개발 – 대학 공동 산관학 협동과정(4개)
  - 산업단지공단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공연화 시범사업(3개)
  - **기업 외부 :** 문화예술교육 사회공헌 컨설팅 – '문화예술교육이 미래다' 캠페인

지역 전달체계 확립

- 중앙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선도 프로그램 기획, 평가 · 컨설팅, 조사 · 연구
- 광역 :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16개)** 예술강사 운영,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초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거점 네트워크(26개)** 기초단위 네트워크 구축

학교 예술강사 연수체계 개선 T/F 운영

참고사례

프랑스는 2005년 문화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재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간 협조전략 개발, 문화기반시설의 활용 및 참여도 제고를 주요 전략으로 삼은 바 있다. 또한 지방문화사업국(DRAC)에 집행업무를 이양하면서 교육부의 지역교육담당국(DAAC)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초중고교, 대학, 보육원, 여가센터 등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장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목표 4

학교와 지역사회, 예술가의 창의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추진배경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이 말해주듯 문화예술교육의 현장단위에서는 예술가, 교육자, 문화시설과 단체와 지역사회 등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되는 한편, 학교를 거점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와 확산에 대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도 추진계획

학교 –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

- 예술꽃씨앗학교(2010년 10개 → 2011년 26개)
  - 소외지역 초등학교 전교생에 1인1예술교육, 지역문화시설과 예술가와 연계 활동
  - 지역문화시설과 예술가와 연계 창작체험 지원, 지역사회의 문화거점 역할

울산 반천초등학교(관현악)
지역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거점화
+
포항 송라초등학교(국악, 양악, 미술)
인근 지역에 예술기관이 없어 학교가 지역문화센터 역할, 유치원~중학교 연계

- **학교 – 문화기반시설 연계 창의적 체험교육**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전국 80개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재능기부 활성화

- **문화예술 명예교사 100명의 재능기부 '특별한 하루'**
  예술가의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멘토링, 교류 · 해설, 강의, 공연, 캠프 등)
- **대학생 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단 전국 25개 팀 활동 (초등학교 연계 활동)**

참고사례

영국의 국가주도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은 학교, 예술기관, 예술가와 에듀케이터, 지역사회, 정부 등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이를 연계하는 매개 전문가(Creative Agent) 육성을 중요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담기구 CCE는 같은 프로그램을 최근 독일, 라트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확산하고 있다.

목표 5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사례를 지역과 국제사회로 확산한다.

추진배경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노력은 정책결정자, 예술가와 교육가, 참여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량적인 데이터의 축적을 통하여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정책 통계의 수집 · 축적, 가공 ·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추진해온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구축은 이미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2011년도 추진계획

- **교육 효과성의 측정지수 개발**
  지수 개발 : 문화역량(cultural competence) 지수, 문화예술분야 창의성 지수
  효과성 측정 : 예술꽃 씨앗학교, 교정시설 · 소년원 문화예술교육 등
  대표사업임상과학적 측정방법 을 활용한 효과성의 정량적 측정 연구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ARM : Arts Education Resource Map) 구축**
  전국 문화기반시설, 예술교육단체 등의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활용
-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구축(2011년 9월 사이트 오픈)**
  한국, 호주,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콘텐츠 공유
- **유네스코 총회 「서울 어젠다」 정식 채택 노력**
  2011년 11월 유네스코 36차 총회에서 결의안 최종심의(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서 실효적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제안하여 채택된 최초의 사례)

참고사례

선진국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직접 보조 외 국가 차원의 정보와 사례의 체계적 분류와 축적, 공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예술교육에 대한 공공정보센터(The Project Bank for Arts Education),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ducart) 사이트 등이 그 예이다. 대한민국의 아태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는 국제 공통기준에 맞춰 정보의 공유와 비교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선도적 사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 www.mcst.go.kr
문화예술교육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 www.artezine.kr
02-6209-5900

www.arteweek.kr